

경제

전남 정보화마을 추석 9억 매출

48개 마을 특산물 특판...전년보다 240% 늘어

올 추석 연휴 기간 전남 정보화마을을 통해 판매된 특산물 판매액이 9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는 13일 추석 연휴 기간 48개 전남 정보화마을(http://jeonnam.invil.org)을 통해 지역 특산품을 대상으로 '2011 전남 정보화마을 추석 특판 행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9억1400만원 상당의 특산물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판매와 전남도청에서 열린 직거래 장터에서 열린 직거래 장터에서 열린 직거래 장터를 통해 판매된 금액을 합한 것

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40% 이상 늘어나는 등 명절 특판 행사 중 가장 많은 판매액을 올렸다. 인터넷으로는 7억7700만원 상당을 판매했고 지난 2일부터 이틀간 도청내에서 열린 직거래 장터에서는 1억3700만원 상당의 지역특산물이 판매됐다. 인터넷으로는 진도 집도웰빙마을이 내놓은 멸치 상품이 1억3700만원 상당 팔려 나가는 등 가장 인기가 높았고 직거래 장터의 경우 영암 도포원에마을의 포도·

멜론이 4300여만원 상당 판매액 판매액이 가장 많았다. 전남도내 48개 정보화마을은 전자상거래와 체험 등을 통해 농산물 판로개척과 유통구조 변화, 농어촌 정보화를 선도하면서 새로운 농산물 유통구조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보화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체험관광 확대, 특산물 브랜드화, 고객관리(CRM) 마인드를 확산시켜 농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한가위 최고 인기 선물은 '김'

168억2830만원 매출...2위 멸치·3위 한과

김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가장 인기 높은 추석선물로 꼽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한나라당)의 원이 11일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석맞이 우체국소포 함인행사 기간(8월22일~9월4일) 최고 인기 상품은 128만4800세트(168억2830만원)가 팔린 김이었다. 2위는 멸치로 20만3400세트(53억2440만원)가 나갔고, 한과는 10만7600세트(27억2490만원)가 팔려 3위에 올랐다. 지난해 우체국소포 행사 때에도 김·멸

치·한과 순으로 판매실적이 좋았다. 4~5위는 꾀갓(8만4300세트)과 배(5만9300세트)가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곡물(5만4800세트)·고동어(5만4700세트)·민속주(4만9700세트)·사과(4만4200세트)·건해산물(4만3100세트) 순이었다. 올해 전체 매출물량은 252만9000세트로 지난해 동기(198만9000세트)에 비해 27.1% 증가했으며, 전체 매출액도 305억4400만원에서 550억6600만원으로 35.8% 늘었다. /연합뉴스

■ 주간 증시 포커스

반도체·철강 바닥권 탈출 조짐

게임 등 내수주 변동장세 대안

변동성 요인들이 여전하지만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KOSPI시장은 당분간 박스권에서 등락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전 세계 이목을 끌었던 미국 소비재 부양책이 실제를 드러냈지만, 정작 주일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재료의 선반영 인식과 추석 연휴를 앞둔 경기 심리로 냉랭한 반응이었다. 이번엔 제시된 오바마 정부의 경기 부양책은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지만 고용창출 및 가계의 소비심리 개선을 통해 부진한 민간부문의 자생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감세를 제외하면 실제 재정지출 규모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일부 지적과 의회 통과 여부에 대한 불투명성이 남아있지만 미국정부가 부양책을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로도 의미 있는 행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될 경우, 추석 연휴 이후 시장의 관심은 유럽 재정위기와 관련된 중요 이벤트들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최근 그리스의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50%를 넘어설 정도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 15일 이후 대규모 이탈리아 국제 만기가 도래하는 등 유로존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유로존 국가들의 행보도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 15일 EU 재무장관회의(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집행에 대한 해법 논의)와 29일 독일 연방회의(유로 재정안정기금 개혁안 표결) 등의 굵직한 이벤트들이 속속 예정돼 있다.

한편, 시장 내부적으로는 KOSPI의 극단적인 저평가 국면 지속, 기관 매수여력 확대 및 외국인 매도세 진정 등의 수급 개선세로 최근의 급락장 장세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지수 하방 경직성이 강화되고 있다. 향후 유럽 재정위기의 진행 상황에 따라 한두 차례 지수 변동성 확대가 재현될 수도 있지만 추가 하락보다는 바닥권을 다지는 과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KOSPI가 업종별로 바닥권에서 강한 반등시도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와 철강 업종이다. 최근 반도체 가격이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대만의 파우칩이 DRAM 생산량을 50% 축소하는 등 경쟁업체들의 감산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철강업종의 경우도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산업 가동률 상승, 중국 천만호 건설사업의 본격화 등에 힘입어 철강가격이 반등하면서 주가가 바닥에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아직 이들 업종이 본격적인 상승추세를 형성하기는 어렵지만 가격 메리트 관점에서 시장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이 예상된다. 이외에 음식료 및 중국관련 소비주, 게임주 등 내수주에 대한 관심 역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업종별 3/4분기 실적 하향 조정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업종의 실적 하향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시장 변동성을 피해야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광은, 스마트폰뱅킹 전용 상품 출시

KJB광은은행은 14일부터 스마트폰뱅킹 전용 예금상품인 'KJB스마트 정기예금'을 출시해 판매한다. 이 상품은 고객이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24시간 상품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금

액에 따라 추가 우대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뱅킹 전용예금이다. 1개월부터 최장 3년까지 가입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1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자유 가입이 가능하다. /최재호기자 lion@

시중은행 가계대출 회수 움직임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회수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은행들이 신규 가계대출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가운데 기존에 빌려준 돈까지 회수하려는 것이다. 은행 입장에선 가계대출을 회수할만큼 신규대출 여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은행들의 갑작스러운 대출금 회수는 가계부담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별 예대상계·만기연장시 부분상환제 시행 = 1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특별 예대상계와 만기연장시 대출금의 일부를 반환토록 하는 제도가 일부 은행에 도입됐다. 신한은행은 이번달부터 개인고객들을 대상으로 특별 예대상계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예대상계란 금융기관이 가계에 빌려준 돈을 해당 가계의 예·적금과 서로 상쇄하는 방식으로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대출금 상환 목적도 중도해지된 예·적금인 약정이자가 모두 지급된다. 신한은행은 예금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고객 중 희망자에 한해서만 예대상계가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롯데백화점 광주점 개점 13주년

“지역 소외계층에 사회적 책임 다할 것”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오는 17일 개점 13주년을 맞아 “지역 친화경영으로 광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의 소외된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투자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고광후(49)점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공헌사업을 확대해 동반성장을 통한 지역민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고객 제의와 현

장중심 경영 등 기부부터 충실하다지는 한편, 탄탄한 조직력을 갖춘 외유내강(外柔內剛)형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은 이를 위해 올해 ▲프로의식을 갖고 소



고광후 점장

통하는 문화공간 조성 ▲서비스 우수 비결은 고객제일, 현장중심 경영 ▲활발한 지역 공헌사업으로 새 유통문화 선도 등의 슬로건을 내걸었다. 그동안 롯데백화점은 결식아동과 소아암, 백혈병 등 어린이와 소년소녀 가장 돕기 바자회와 함께 재향민 등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환경보전 캠페인, 빛고를 1% 나눔운동, 무등산 보호환경 캠페인 등 지역친화사업을 꾸준히 펼쳐며 이익금 일부를 지역에 환원했다.

또 모교 마일리지를 적립해 장학금으로 사용하는 ‘광주전남 인재육성 기금 마린 캠페인’, 재활용품 기부받아 판매 수익금으로 이웃을 돕는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하는 Green 마케팅’, ‘사람의 집 고쳐주기’, ‘우수 중소기업 상품전’ 등 다양한 지역 친화적 행사를 펼쳐왔다. 특히 고객 불만족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개선하는 ‘집중 근무시간 제도’, 고객과의 약속 불이행을 없애는 ‘고객 약속관리 시스템’, 서비스 정신 재인식을 위한 ‘서비스 라인 지키기’ 등 친절 서비스 모델백화점으로 자리매김했다. 고점장은 “지난 13년간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 ‘불가사의 없는’은 공의와 신념으로 항상 최고를 만들어내는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exian@kwangju.co.kr



롯데제이티비 1577-6511 롯데JTB 대리점모집! OPEN 순천점! 2차는싼대! 롯데제이티비

중국여행 중국여행 상해/소주/동리+2층버스시티투어 4일 399,000~ 10/3,10,17,24

특가찬스! 광양 해리! 큐슈 미라+온천여행 4일 219,000 9/18,25 269,000 10/29,16,23,30

유럽* 스페인 포르투갈/바르셀로나 10일 3,390,000~ 9/26,28 10/5,7,12,14,26 11/1,11,18

동남아* 롯데JTB만의 알뜰상품 시리즈 대만/아류/화란+온천 4일 699,000~ 9/30 (단일)

남태평양* 남태평양* 파푸아뉴기니 4일 1,390,000~ 9/27,29 10/6,11,13,16,20,25,27 7

상당 및 문어치! 롯데백화점(광주점/전주점) 롯데마트(침단점/상무점/월드컵점/수원점/여수점/여천점/전주점/전주덕진점/군산점) 전주 중앙점 익산점 광주 북구점 광주 안양점 순천점